

‘화해중재원’ 10주년…더 큰 사명 기대

피영민 목사 “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기독교인사이의 법률 분쟁을 자율적·평화적·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 원장 박재윤 장로)이 10주년을 맞이 지난 4월 8일(토) 서울 노원동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피영민 목사)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지난 10년간 화해와 평화라는 성경적 목표를 바탕으로 화해중재원을 이끌어 온 피영민 목사는 앞으로 화해중재원이 한국교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 목사는 “한국교회에는 신학적, 정치적, 재정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다. 그리고 이 갈등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다”면서 “하지만 이 갈등을 법원에만 의지할 수 없다. 화해중재원은 이를 예측하고 10년 전 출발했다. 아직 골목골목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구조가 그간 목사 중심의 구조에서 평신도 참여가 증대되면서, 변화에 따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교회들



이 힘을 모아 화해중재원을 키워나가고 복돋아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피영민 목사의 사회로 광동회 목사(기침 증경총회장)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광 목사는 “화해중재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온다.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위해서다. 그들이 화해를 한다면 사실 을 일도 없다”면서 “그들이 진 돌을 내려놓도록

중재를 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속죄하는 종교다. 심판이 아니라 지유를 주고, 죽이지 않고 살리는 종교다”면서 “화해중재원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중재한다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면 안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교회본질 회복으로 성경말씀대로 살자”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3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경직 목사 기념의 집에서 정기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란 공동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송영재 목사의 사회로 부총재 김수만 목사의 기도, 총괄본부장 김승희 목사의 성경봉독, 성악가 정마리아의 특송, 상임회장 유은옥 목사의 5:19~14절을 본문으로 한 ‘노헤미아의 나라와 민족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은 십

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저야하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현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총재교본 전석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사무총장 김광미 목사의 사회로 ‘나라와 민족 모든 민족에게 은혜 주심, 주께 감사’ 상임회장 유은옥 목사가, ‘세계 선교 민족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소서’를 주제로 상임회장 홍종성 목사가, ‘교회본질 회복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경만 목사가, ‘동성애 반대와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하여’ 이사 김영진 목사가, ‘한국교회 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는 하나님이 막힌 담을 기도로 부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세계바울부흥선교협, 3월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

협의회 발전책 논의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올림픽 파크 호텔에서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최남복 목사의 사회로 강봉규 목사의 대표기도,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심재선 목사의 변전 2:18~26절을 본문으로 한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기태영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의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시낭송 후 최남복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오찬기도회 및 실행 위원회는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김종석 목사가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하여’, 황준의 목사가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인도한 후 ‘고난주일 십자가 은혜와 승리’라는 주제로 합심기도를 했다.

동 협의회는 이날 다음 모임을 오는 5월 25일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갖기로 한 후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책을 논의했다.

실행위원회는 이승진 목사의 폐회기도 후 오찬시간을 가졌다.

루터대, 제3회 성주간 세족예배 드려

대학구성원의 소통과 화합 위해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칠)는 지난 3월 27일 대학 재물 시간에 제3회 성주간 세족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 교수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전통적으로 루터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이

후의 한 주간을 성주간으로 지킨다. 흔히 한국 교회에서 고난주간으로 지켜지는 이 주간에 루터교회에서는 세족예배와 성금요일에 배를 드린다. 이 오랜 전통에 따라 루터대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성주간에 세족예배를 진행해 왔다.

제3회를 맞이한 루터대학교 세족예배는 대학구성원들이 절대적 위기감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대학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전통적인 성주간 예배가 시작되었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섬김과 순종의 세족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대학은 절대 위기의 시간에서 희망의 시간으로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제3회 세족식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긴 루터대학교 권득칠 총장은 “세족식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세상을 향한 섬김의 자세와 주님을 향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실제적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루터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 삶의 교육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꾼을 양성하지는 루터대학교의 교육목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하였다.

한기총, 제29-1차 임원회 열어

공동회장 24명, 부회장 22명 임명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월 12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1차 임원회를 열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 제29회 기 신 임원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30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어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 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기타 안건으로 한기총과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통합에 관한 내용은 지난 4월 3일과 6일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태희 목사

가 보고했고 향후 임원회에서 기타 안건이 아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은 기임 교단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최홍재 목사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했음을 보고했다.

이은재 목사가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엄신형 목사는 “총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은재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가 거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회장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엄신형 목사(증경 대표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기연 제1회 시각장애인복지선교대회 개최

흰지팡이 400개, 롯데제과 선물세트 등 전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4월 8일(주일) 오후 3시 국립 서울맹 학교 강당에서 제1회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한기연은 참석자 4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흰지팡이 400개와 1천만원 상당의 롯데제과 선물세트를 선물하고 위로했다.

한기연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박흥윤 목사)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시각장애인 흰터 마련을 위한 찬양제로 진행됐다.

김병태 목사(한기연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명근 장로(한국맹인교회)의

기도와 연합찬양의 찬양, 권태진 목사(한기연 상임회장)의 설교, 장천호 목사(예능중앙교회)의 봉헌기도, 남수현 권사(영배삼일교회)의 특송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재진 목사),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권오철 장로), ‘시각장애인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흰터 건립을 위해’ (조완제 목사), ‘시각장애인들의 작업 안정과 중도실망자들의 재활을 위해’ (김호경 목사), 각각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기연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한기연 회장 박흥윤 목사에게 시각장애인 보행을 위한 흰지팡이 400개(1천만원)를, 사무총장 최구수 목사가 롯데제과에서 후원한 1

천만원 상당의 과자를 각각 한기연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동교 목사(하나교회)가 흰터 마련을 위한 ‘153운동’ 출범식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후 회장 박흥윤 목사가 대회사를, 사무총장 최구수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권태진 목사는 “무리의 벽을 넘어라” (마 20:29-3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런 장애물을 넘고 극복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잠잠함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한기연 회장 박흥윤 목사는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 복지선교대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필수품인 흰지팡이 400개와 과자선물세트 1천만원 어치를 후원해 주신 한기연에 감사드리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시각장애인 흰터 마련을 위해 ‘153운동’은 1만원 혹은 5만원 후원자 3천명을 모으는 운동”이라면서 한국교회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광열)와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문화 예술의 활동에 대한 홍보와 그 역량을 알리고자 4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합창예술제를 개최한다.

본 공연은 장애인의 날 기념하여 4회째를 맞는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 발전과 인식개선에 기여하여 장

애인합창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장애인 유형 구분 없이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단 5팀이 출전을 한다. 출전팀으로는 다문화합창단(사회복지법인다문화), 담쟁이코러스(성곡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대림푸른초창합창단, 서울푸른나래합창단, 어울누리합창단(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이다.

축하공연으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

회 개최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대한민국 휠체어합창단과 2018년 평창패럴림픽 문화공연을 펼친 국창협회예술학교의 국창협나눔합창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민요자매 이지원, 이승원의 우리가락과 활발한 방송 및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모세의 축하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의 최우수팀은 2018년 11월 22일 KBS홀에서 펼쳐질 ‘제26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주)한샘, 홀트아동복지회 장애 학생 도서관 건립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9일, 일산에 위치한 홀트학교에서 (주)한샘이 후원한 도서관 준공식을 열었다. 홀트학교는 1962에 설립돼 현재 20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이다. 홀트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 아동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한샘이 후원을 결

정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은 “잡자채, 미디어시설 등 장애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완공된 이 도서관은 홀트학교 학생들에게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키워 나갈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주)한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샘 관계자는 “아이



들이 새로운 도서관에서 보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며 꿈과 아름다운 도전을 키워나갈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6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 받고 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인양을 시작으로 아동복지, 미혼한부모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을 비롯 다문화가족지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해외빈곤 아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자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기관이다.

한편, (주)한샘은 한국의 종합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 인류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장애인 특수장비버스 기부, 청소년 장학금 후원, 학대피해 아동 지원 사업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지방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4월 10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46에 위치한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제86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정미자 목사(성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찬송인도에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 대표기도에 서경오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 성경봉독에 최정용 목사(순복음민음교회), 특송에는 사모들의 울동찬양으로 은혜의 찬양을 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는 신 9:16-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본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원이 될 것”을 전



파하여 참여한 회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헌금기도에 김효신 목사(선양교회)와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정기지방회 회무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목사임직 대상자에 대한 준비와 차기 신임 임원이 선출되었으며 회장 박흥열 목사, 부회장 김남수 목사, 정미자 목사, 총무 서성영 목사, 서기 김효신 목사, 회계 최정용 목사, 재무 서경오 목사도 새임원

들이 선출되었다.

신·구 임원들의 인사 및 회장, 총무의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신임회장 박흥열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열심히 할 것과 회원들에게 많은 참여와 기도로 협력을 당부했다.

3부 순서는 오성사랑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으로 인근식당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나누었으며, 식사 후에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진행으로 잔디밭에서 다리 묶어 달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정기지방회, 세속과 구분되는 삶을 살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4월 2일(월) 오전 11시, 드림교회(담임 조광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의 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최은규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의 헌금기도, 그리고 최은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창 30:37-43 말씀을 본문으로 ‘구분하고 따로 두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 해 동안 회장의 사명을 감당토록 도우신 하나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했다.”고 전한 뒤 “더불어 목회자의 소명이란 성도를 세속과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아낌처럼 십자기를 바라보며 목양에 일념 헤아림”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회장 최은규 목사의 인도로 정기지방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회장에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를 선출하고

부회장 전하세(열린축복교회), 총무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 회계 최금자 목사(은누리순복음교회), 재무 안재봉 목사(비전교회)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증경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정기지방회, 바른 복음을 전하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4월 9일(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은혜외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봉기 목사(순복음보



리울교회)의 사회로 회장 유석구 목사(에바디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의교회)의 성경봉독, 교단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남영 목사는 고후 2:12-17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목회할 때 회색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최은주 전도사(흰돌순복음교회)의 개척인사와 지방회 안건을 논의한 후 2018년 신임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으로는 이은승 목사(은혜외승리교회),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교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 서기 신근철 목사(귀리순복음교회), 재무 한신 목사(반포순복음교회), 회계 김현수 목사(대리순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이후 은혜외승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짐으로 월례회 행사를 마쳤다.

정기지방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4월 3일(화) 오전 11시 순복음포도원교회(담임 오일선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원을 선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노우석 목사(영안교회)의 기도, 서기 윤욱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현안서복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목사는 마3:7-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한정숙 목사의 헌금기도와 순복음포도원교회 오일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각부 회부보고와 처리, 임원 선출 인준이 있었다. 신임임원은 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 부회장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 총무 전

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 서기 윤욱 목사(성신순복음교회),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창대교회),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선출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순복음포도원교회에서 점심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지방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4월 3일(화) 한사랑교회(담임 안홍규 목사)에서 정기지방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오수경 목사(장지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아신순복음교회)의 설교,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세소망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차 목사는 요 14:6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요셉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던 것



과 같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목회하는 길은 가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67자 임원을 선출하고 한사랑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오찬을 나누며 4월 정기지방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안홍규 목사(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 총무 오재우 목사(아름다운포도원교회), 재무 오수경 목사(장지순복음교회), 회계 이인복 목사(순복음송죽교회).

정기지방회,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깨달아야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장모 목사)는 지난 4월 3일(화) 오전 11시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허드보라 목사(인천성문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마 27:32-44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깨달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누리



며 목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회계 이현숙 목사(시랑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 지방회장 이장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부처리를 하고 새 회장을 선출했다. 지방회장에 반인홍 목사

를 선출하고 티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송도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으로 식사를 하고 ‘이때 인생, 얼마 영성’을 저술한 반인홍 목사의 설명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중동부전선 을지부대 방문, 장병 위로 격려

군선교위원회 교단 중진 목회자 격려의 말씀 전해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4월 3일(화) 교단 증경총회장 이장재 목사를 비롯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교단 전총무 김병목 목사, 강원서지방회 임병재 목사 등 교단 중진들이 국토방위를 위해 철동 경계에 여념이 없는 중동부전선 을지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이날 교단 중진들은 사단장을 비롯 간부진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인사를 나눈 뒤 부대 경계근무현황에 간략히 소개받고 이장재 목사의 국토방위 장병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후 임웅재 목사는 말씀을 통해 어제나 오늘



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장병들을 축복했다.

사단장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간증하며 교단 목회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단 목회자들은 장병들의 생활관을 방문하고 김병목 목사의 간절한 기도와 임웅재 목사의 축복기도 후 을지전망대를 견학하고 준비해준 TV 10대와 음료수와 간식 등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⑦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⑥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 생명의 말씀 ■



김 양 인 목사

· 예하성 교단 총회장
· 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장
· 목양제일교회 담임

오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참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드림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줄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구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기분이 울적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다시금 마음 속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양심이 괴롭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죄책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해방시킬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죄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는 늘 염려하면서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감으로 불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울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무익한 일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 6:29)고 하셨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것이 행복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성도님들의 수고는 주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후사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터인데, 그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 33:12) 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즉 이 시간 말씀해 드린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출제한 것은 직관내용이며, 과잉적인 친북 성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국가는 공무원의 수준만큼 발전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공직자들은 국가를 대리한 사람들로서 업무수행과 품위와 국가관과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며,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이런덕목 갖기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그 의도성에 대하여 큰 불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적행위는 아닌지 살펴 볼 것이며,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동 정

김순권 목사 스위스 회의 참석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원로)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취리히 리젠돌프호텔에서 개최되는 CSI(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 기독교국제공동선교회) 제41차 총회와 이사회 참석차 4월 17일 출국했다. 현재 CSI스위스본부 이사를 맡고 있는 김순권 목사는 총회기간중인 4월 20일 오전에 드려지는 경건회에서 설교를 한다.

31년째 기도회 이끈 정근모 박사



원자력 기술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정근모 박사는 14일 오전 7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삼삼제일교회 소그룹1실에서 ‘제1586회 민족화합기도회’를 인도한 뒤 민족화합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삼삼제일교회에서 3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은 45년간 여성들의 가정문제 법률구조와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온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선정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운영위원회(위원장 한영수)는 4월 2일 한국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며 올해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영남신학대 이사장 취임식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 이·취임 예배가 지난 4월 12일 교내 이상근기념관 정류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식목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8대 이사장에 취임하는 김우연 목사(동성교회)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시, 시험에서부터 북한을 인식하게 만드나

지난 달 24일 서울시가 9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국사 시험 문제에서 북한의 정권수립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시험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문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조선인민군 창설, 토지개혁 실시, 북한노동당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등에 대하여 연대순으로 적으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민

들의 의견을 갈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분야별 난이도별, 출제위원별로 배분하여 출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원을 선출하는데, 그들의 직종이나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더군다나 다른 한국사 문제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북한주민도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의 처원을 넘어서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하여 역사왜곡과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며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지방 지체 단체인 서울시가 직무나 공직으로서 별로 연관성도 떨어지는 북한 정권수립 과정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쉽게 수긍

이 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왜 북한을 역사로 접어들어야 하는가?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 공무원이라는 말인가?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해야 하며, 담당자들을 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 남북 간에 대화와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매우 유동적이며 또 공무원들은 이런 사안에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한국교회 진단

이효상 원장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일제치하의 한국교회 핍박

1910년 경술년 ‘국치조약’ 즉 ‘일제에 의한 병탄조약’이 있었다. 8월 16일 통감은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테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압록의 일제의 침략시대 36년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식민지정착에서 처음부터 ‘동화정책’을 넘어 곧 한민족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민족말살정책’에 목표를 두었고, 전 식민지기간 한국교회를 식민지 통치의 거침돌로 인식했다. 즉 한국교회를 반일의식을 고취하는 ‘불령선인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침략사례로 볼 때 침략은 수탈과 연속적 관계로 그치지 그들의 고유한 관습과 종교, 교육까지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달랐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총실한 신민’을 만드는데 있었다. 매켄지 기자의 보고서 ‘조선의 비극’에 따르면 한국을 지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복속시키기 위해 한국 민족 자체를 해체·동화시키려는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 일제가 한국교회를 경계와 주목의 대상으로 삼은것은 교회가 가진 유일신 교리적 특성과 세계사적 역사성 외에도 한국내 기독교의 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기항이후 일본의 진출과 동시기에 한국에 수용되었다. 비록 활동 영역이나 목적은 달랐으나 결국 동일한 역사의 장(場)에서 각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 시키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었다.

이후 정치력이 일본에 쏠리게 되면서 자연히 기독교세력은 상대적으로 반일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이같은 성격은 결국 한국기독교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발전된 결과를 가져왔다. 즉 한국기독교가 기독교계 신교육기관을 통해 자유·평등 사상과 더불어 자주·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점차 민족분제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새로운 세계관의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다. 1890년대 이후 민족 모순에 대한 민족적인 인식이 고양되었던 시기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1900년대 한국근대사의 초기에 접어들 때 기독교 교세의 급속한 확장과 동시에 민족적 자각의식이 대중 속에 확산되었는데, 그 중심적인 집단이 바로 교회였고 그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기독교를 항후 식민지 지배의 최대 거침돌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일제의 경계와 적대적인 기독교 인식을 가져온 사건이 ‘강제병합’ 직전에 일어난 일련의 암살사건과 ‘노도의 불길처럼’ 확산되어

갔던 기독교 교세의 확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기독교의 급성장은 일제의 식민지화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제의 기독교 핍박은 회유와 탄압이라는 양면정책으로 진행되었다. 회유책은 대체로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 기간에, 탄압책은 ‘합방’ 이후 3.1운동이전까지 행해졌다.

1909년 10월 이토오 히로부미가 살해된 이후 일련의 배후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한 일제는 기독교 단체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바로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려는 성급함을 나타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910년 가을, 이상재, 양전백, 최병현 등 당대 기독교지도자 인사 19명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환대하는 등 회유정책에 공을 들인다. 일본 조합교회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적인 특별지원금을 풀어 직접적인 탄압정책을 유보하고 한국교회의 외화와 분열, 기독교인을 회유하는 전략을 집요하게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이 민족계몽과 개화의 문을 열고 있었다. 1900년대 초기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대단한 속도로 파급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감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공포, 민족주의계 사립학교를 대폭 제거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학교의 운영자 명의를 지외법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의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 당시 미션선교사가 134개교, 노블선교사가 74개교, 콘스선교사가 35개교 등 미션스쿨을 운영할 정도였다.

한국교회 핍박이 더 심화되고 탄압으로 전환된 것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식장권과 만주철도경영권 문제로 미·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초대 총독 테라우치의 반 기독교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강제병합’ 직후 세계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은 1911년 일제가 무단통치의 일환으로 민족운동을 하던 신민회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조작하여 105명의 애국지사들 투옥한 사건으로 일제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도덕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한편 기독교 대박해서건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 깊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1919년 3·1 운동 때는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 주민들 20여 명을 학살한 것만이 아니라, 간도(間島) 용정(龍井)지를 중심으로 수천 교인들이 일어나 만세를 부르다

가 17명이 총살당하였다. 청산(靑山)에서도 백운교회가 불태워졌고 부속된 학교 교사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때 9명의 교인이 총살되었다. 새 노루바위(偶羅峯)에서도 교회당이 소실되고 33명 교인이 학살되는 참상을 빚었고 양무정자(楊武亭子) 교회당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일본군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무차별 학살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일제의 한국교회 핍박의 절정은 ‘신사참배’였다.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징용, 노역장으로 끌고 가며 신사참배를 강요, 억지 충성을 요구했다.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과 사상,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할 것과 예배 시작에도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찬송가에 기미가요·우미유가바·황국신민서사 등을 앞부분에 페이지 표기 없이 강제 삽입하고 예배시 부르게 하였고, 예배 순서지에는 국민예례라는 이름으로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는 동방요배와 기미가요, 황국신민서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찬양을 삼키며 황국신민을 만들고 대동아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성서강의회’라는 이름으로 경찰서장과 목사가 함께 인도하는 집회를 열어 일제가 벌인 전쟁에 참여를 독려했다.

일제의 천왕숭배와 신사신앙을 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는 한국교회의 순교신앙과 함께 공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들 노골적으로 억압해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시켜 ‘황국신민화정책’과 ‘침략전쟁수행’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일제 36년간 사상 유례가 없는 잔인하고 원색적인 방법으로 일제는 한국교회를 짓밟으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신앙부흥과 베일사상 그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사하기도 하였다.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현재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는 ‘국치조약’과 ‘신사참배’, 8·25이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핍박중에도 십자가정신으로 실의에 빠진 민족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각종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도력을 양성하여 민족과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끈기와 전력으로 오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즉 ‘순교신앙’이다.

목양의새

최형택 목사 // 교단 직전총무,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계 17:1-3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계1:1),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계 1:19),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1)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며 서신서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 이처럼 ‘주의 심판의 날’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없이 귀중한 말씀이다. 본문 1절에서 “...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반드시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한다. 본문의 해석이 최상이라 보지 않는다. 다만 부족한 종의 최선의 해석일 뿐이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가 달리 해석이 된다면 언제라도 수정할 것이다. 곧 이루어질 심판,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1.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이다.

1절 “...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많은 물은 혼합된 종교이며 사상이고 이념들이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철학이다.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사상과 철학, 수많은 정보와 이념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시대임을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종교를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있으며, 삶 속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마음을 쏘아 낼 수 있을까?

바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종교다원주의이며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이며 심판 받을 큰 음녀, 거짓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특히 이 시대 이념적인 것으로 섞여져 있다면 머지않아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2.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임금들이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큰 음녀가 ‘WCC’ 세계적인 단체이며 혼합주의 집단이라면,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임금들은 교황과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를 이루어가는 세계적인 권력자들이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침내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이들은 끝내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다. 뉴욕 911사태 등을 통해 나타난 이들의 음모와 앞으로도 치밀하게 세운 이들의 계획을 어느 세력이, 어느 막강한 군대가 맞설 수 있을까? 이를 바라보고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짓밟히도록 그냥 놔두어야 하는가? 영적인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실체를 보아야 한다. 적을 알아야 한다. 그해야 바르게 싸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로 하나 된 일무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회 등 수십 개의 치밀하게 조직된 세력들이 있다. 이들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며 놀려있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들의 수작은 모든 주의 종들을 각양 이념 속에 갈등을 갖도록 프래임을 짜놓고 마음껏 휘젓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음모를 모르면 이들에게 맞설 수도 없으며, 종말에 깨어있는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이 대한민국이 성경적인 다윗의 왕국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다윗을 세우고 그 땅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종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벗어 버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야 진정한 평화, 살림을 올 수 있다.

3.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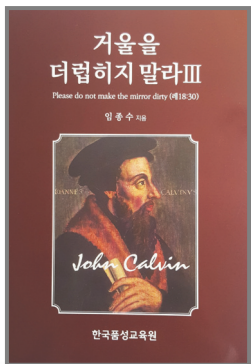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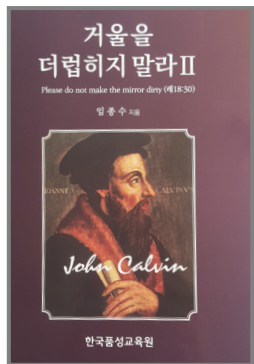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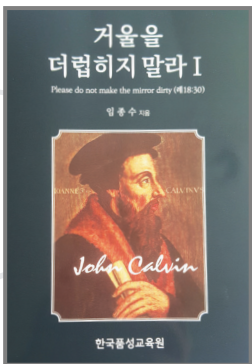
3절 “...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으며”

계시록은 대부분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붉은 빛이라 한다면 중국, 공산주의이다. 중국에 가 본 사람이라면 부인 할 수 없는 것이 오흥 붉은 빛이다. 공산권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해왔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는 얼마든지 많다. 적그리스도와 공산권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해 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여자는 성경 전체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주의 종이나 교회가 붉은 빛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을 위한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많은 헌신들,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것과 다른 말이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중국을 받아들여선 결코 안 되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거룩한 땅을 내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진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 땅을 공산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새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렘 31:31-34). 율법을 십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가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간담이 다 녹았던 것처럼 이 땅에 심판 받도록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 인본주의와 마시즘, 철학적인 신학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철통같이 무장해야 한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계시록으로 무장하여 “신랑 이로다” 외치며 잠자는 처녀들을 깨워야 한다. 마리아니! 다시 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크게 외친다! “신랑 이로다! 신랑이로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굵,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종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교사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은혜' (벧후 3:18)

- 대 상 : 교단 산하 교회 교회학교 교육담당자 및 교사
- 교 재 : (1)책자 2,000원 (2)찬양CD 2,000원 (3)찬양울동DVD 5,000원
- 특 징 : (1)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2)새로운 찬양울동 보급 및 성경퀴즈대회
(3)중·고등부 선택특강
- 일 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031-443-3731)
- 계 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연 락 처 : 전화 02-2675-5181, 팩스 02-2677-5181
이메일 aogk@aogk.org

*참가비는 없으나 교재를 구입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석을 미리 알려주시면 교회별로 자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出産, 高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저직분들을 전국지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營業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상담전화(전국) 1566-505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정기지방회,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자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대행 서베드로 목사)는 지난 4월 5일(목) 오전 11시 목포시내산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현기봉 목사(장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정복래 목사(동산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순복음혜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왕 목사는 전 7:1-7 말씀을 본문으로 '우매자로 살 것인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김정구 목사(원양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 시간에는 새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만장일치로 회장에서

베드로 목사, 부회장 정복래 목사, 총무 현기봉 목사, 서기 홍광희 목사, 회계 민순복 목사가 선출되었다.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이사장에 취임

한국국제기아대책 강원본부 강릉지역 후원이사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강원본부의 강릉지역 후원이사회(이사장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는 지난 4월 6일 강릉시새강릉교회에서 이, 취임예배를 드렸다.

2년간 정재홍 목사가 이임하고 이어서 신임 이사장에 김용덕 목사가 취임하였다.

취임예배 후 열린 이사회는 김용덕 목사 주재로 라오스의 ○ ○교회 자립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계장지원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5월 12일(토) '해밀'에서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일일차집을 열기로 하였다.



용산역 주변 노숙자 무료급식 중단 위기 도움 요청



지난 4월 3일(화) 오후 4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35 연희2동 719-5 연희연선아파트 A동 103호(장애인공동생활가정 '행복의 집' 서대문구청 지원)에서 가거하던 김명준 군(22세, 정신지체 2급)이 무면허인 상태로 시설장 최성원 목사(행복의집, 좌측사진)의 자동차(무료급식식자재 운반차량 승합차) 옆좌를 허락 없이(최성원 목사는 출타 중인 상황) 가지고 나가 사진과 같이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800만원과 상대방 차량(승용차) 두 대와 세워놓은 오토바이 등을 들어받아 파손하여

약 20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혀 민·형사상의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 목사는 장애인들과 오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행복의 집과 무료급식처소를 13년간 운영(허가받은 단체)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만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원 목사는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여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이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선교사로 소망교회를 개척하여 선교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일산지역에서

일산순복음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최성원 목사는 관할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에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1번째 서울역·용산역 주변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오면서 재정적 고통 속에 있는 노숙자선교연합회 용산역 무료급식 운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왔다.

계좌번호 후계국 011346-02-165005 최성원 연락처 010-3062-8282, 02-754-3311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G ASSEMBLIES OF GOD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G ASSEMBLIES OF GOD

글로벌교육대회 ‘GEFE 2018’ 개최

단위학교 주도로 유럽에서 글로벌교육대회 ‘GEFE 2018’ 개최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남진석 목사

사단법인 글로벌교육선교회와 글로벌선진학교(음성, 봉성, 미국 펜실베이니아)가 2018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안스테르담,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유럽 주요 5개 도시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명승지 탐방과 버스킹 활동 그리고 글로벌 교육 대회 GEFE 2018(Global Education Fair in Europe 2018 이하 GEFE-를 개최한다. 중국 국가교육원 직영 대림금석탄 실험학교(총 교장 우조하)와 공동주최하며 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에 소재한 20개가 넘는 자매학교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낸다.

특히, 대한민국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겪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은 ‘파독광부 55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정부와 파독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삶을 그린 특별 뮤지컬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를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GEFE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글로벌선진학교의 우수한 교육 결과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선진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유럽 무대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지경을 넓혀가는 글로벌선진학교(GVCS) 글로벌교육대회 GEFE는 교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자매학교 참가자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명이 참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교육대회에 대해 설명하는 남진석 이사장

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이미 전 세계에 진출한 동문을 비롯하여 관계, 교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함께하게 될 교육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독일 현지에서는 한인사회는 물론 주요 자매학교, 주요 대학 등 교육계 인사들과 연방의회 의원, 연방교육 고위관료 등의 정관계 인사들, 한인교회 및 독일교회 주요 교계인사들, 그 외 실업인, 주재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로 앞서 언급한 5개 코스 유럽투어, 중국의 우상(宇商) 교육 관련 자국 교육의 특성을 자랑하고 비교하는 글로벌 유스포럼(Global Youth Forum), 각국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경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올림피아드(Global Academy Olympiad), 독일 본

데스리가 청소년 대표팀과의 친선경기, 태권도 마스게임 등을 선보이는 연합체육대회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대학 무상교육 시행하는 유럽 진출의 발판 마련**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지구촌의 수많은 인재와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글로벌교육선교회와 글로벌선진학교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육 지경을 크게 넓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럽 진출도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EFE 관련 신청 및 문의(054-559-7042)

한장총 제7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 개최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비전센터 하은홀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에서는 5월 10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비전센터(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제7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한다. 2012년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한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는 금년 제7회를 맞게 된다.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행사는 아마도 이 찬양제가 유일한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미래의 장로교의 희망인 신학대학생들의 연합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번 찬양제의 준비위원장인 오지용 목사는 “미래의 장로교지도자들이 신학대학생들의 찬양제로 교회 음악의 수준을 향상하고, 한국 장로교신학생들의 연합하는 행사를 TV방영을 통하여 홍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찬양제는 각 학교의 자율적인 곡 선정 및 준비로 연합찬양제가 매우 다양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하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5월 10일(목)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찬양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참가학생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패와 소정의 출연료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현재 참가 신청한 팀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마분(중



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흐발라(남성중창),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에이레네(여성중창),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브라팔라(합창), 백석대학교 백석대학합창단(합창),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SPECIAL B(합창), 서울한영대학교 루미에르(합창), 칼빈대학교 리더 크라이스(중창), 서울장신대학교 밀알중창단(중창) 9개 팀이며 4개 학교가 추가 신청할 것이 예상된다. 문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02)764-0950.

CTS 창사 23주년 특별모금생방송 <CTS WEEK>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가 창사 23주년을 맞아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를 『CTS WEEK』 주간으로 선포하고, <특별모금생방송

CTS WEEK -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2018년 봄, <CTS WEEK>는 ‘이 땅의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영적 생명까지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한다.

16일(월) 오전 8시 30분 생방송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 2018 <CTS WEEK>는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는 부흥회로 시작, CTS를 통해 일어난 생명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사례들을 방송하고 열방을 향한 사역들을 조명한다. 또한 다음세대 프로그램, 동성애 및 이단 대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기의 가정이 회복된 사례들도 방송한다. 김승욱 목사, 브라이언 박 목사 등 목회자의 말씀으로 포문을 열고 연예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과 CTS 방송선교를 통해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과 후원 사례들을 나눈다.

에이즈 인식관련 여론조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약값 전액 평생 무료 지원

한국가족보건의료협회(이하 한가협, 대표 김지연)은 4월 7일(토) 보건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에이즈(HIV/AIDS)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3월 27~29일까지 실시하였다.

매년 AIDS 신규 감염자 발생 예상 건수를 묻는 질문에 10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13.4%, 1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29.0%, 1,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16.5%, 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5%, 잘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36.6%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국민들(83.5%)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연속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응답한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64%만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36%는 모르고 있다고 답하여서 에이즈 예방 교육의 허점을 드러냈다.

세 번째로, 최근 군대 내와 청소년층에서의 에이즈 증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63%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7%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네 번째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7%의 응답자가 잘 모르거나 틀리게 알고 있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 이상이다.

다섯 번째로, “전생남게서는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 가격대가 월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0만원 이상이라고 정확히 답한 응답자는 10.5%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정보에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전생남게서는 HIV 감염자 즉,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비와 약값 전액이 평생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단지 19% 응답자만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생남게서는 AIDS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라는 질문에 62.1%의 응답자가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라고 답하였다.

바른 에이즈 정보 전달과 교육을 위해서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85.9%)과 무선 ARS(14.1%)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5% 신뢰수준에서 ±3.2%p이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알려드립니다

교단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박용호 목사입니다. 지난해 목회자세미나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자연은 물론 정말 좋은 환경의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매료되어 사외이사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행사 세미나, 회의, 발표회 등 귀한 행사에 좋은 환경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코자 합니다.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 사외이사 박용호 목사 010-4873-0448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부활절 앞두고 생명나눔운동에 동참

전국 11교회 성도 1,034명 장기기증 서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생명나눔예배가 지난 3월 25일 전국 11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평제일교회(담임목사 김종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 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평제일교회에서는 본부 이사장인 박진택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생명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웅 담임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나눔에 앞장서자."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부평제일교회 성도 중 총 43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생명나눔을 위한 교회의 움직임은 진전에서도 이어졌다. 충북 진천군 진천제일교회(담임목사 박한철)에서도 생명나눔예배가 진행됐다. 박한철 담임목사는 '실지기를 지신'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생명나눔을 통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자."라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진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운동



에 동참해 총 14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인천, 진전을 넘어 서울 부산 대구 아산 진주 군산 담양 제주 지역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서울 금천구 독일교회(담임목사 송민우), 부산 금정구 서동신교회(담임목사 백인석), 대구 수성구 정동교회(담임목사 권오진), 인천 연수구 성암교회(담임목사 이은규), 충남 아산시 서광교회(담임목사 김진은), 경남 진주 진주대광교회(담임목사 정지현), 전북 군산 생물교회(담임목사 최영배), 전남 담양군 담양읍교회(담임목사 조택익), 제주 김녕교회(담임목사 이해춘)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11개의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져 총 1,034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방과 후 청소년 위한 ‘꿈마루’ 2호점 개소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삼성증권이 지난 4월 3일(월)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하는 청소년 공부방 '꿈마루' 2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서경석 기아대책 부회장,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김태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꿈마루'는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가정 청소년 중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삼성증권의 후원을 받아 기아대책

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은 기아대책 산하시설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관 인근 지역은 동작구에서 저소득 가정 및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아 청소년 복지를 위한 공간이 시급한 지역이다.

꿈마루 사업은 공간 제공 외에도 제과·제빵, 컴퓨터 자격증 등 전문교육, 교과별 학습 멘토링과 전문강사의 영어교육지도, 고민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증권 인직원들과 함께하는 통해 경제교실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자신감이 넘치는 사모전도특공대!!

지난주 부산영락교회에서 목요행사로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트전도세미나에 참석하여 첫 시간부터 성령충만함으로 감사 박영수 목사의 말씀선교(간 1:12)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세트전도 워크샵 후 교구별 제직들과 민들레전도단을 세트전도 현장 실습을 위해 4팀으로 나눠 교회 주변 상점과 길거리에 정착하고 있는 분, 오토바이 타고 가던 분, 신호대기중인 트럭기사 등 어떤 상황에서도 영접기도 후 교적을 찍고 사업장인 경우는 주인을 영접기도 후 교패를 입구에 붙이고 교인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고 사업장예배도 드리기로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령의 능력전도를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박영수 목사는 전도현장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할 것은 가족세트전도 시스템대로 반복과 훈련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기도하고 성령충만함으로 전도하려 나가면 반드시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 했다.

저희들은 전도 현장실습을 하며 요즘 시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족까지 어떻게 교적을 적을 수 있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전도현장에서 교패까지 붙이고 기념사진 인종사진까지 5분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전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하나님 말씀에 전하면서 안수 기도 할 때는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감전된 듯 짹짹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기 가족사항을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 영락교회 교구성도들과 민들레전도대원들, 전도사, 부목사도 놀라며 세트전도에 열정을 가졌다.

전도한 뺑뺑주인은 영접기도 후 전도팀이 그 가계를 나올 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기도 했다. 또 가계공구 사업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 영접 후 교적을 찍고 교패 붙이는 것을 본 성도들이 저

렇게 완강한 사람도 전도가 되는구나"하며 놀라워했다.

부산집회를 마친 후 거제도로 돌아와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예배 후 전도에 나섰다. 삼성조선, 대우조선 직원들이 출근박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고 이번 주 교회 주일예배 참석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박영수 목사는 전도자로 세우고 가족세트전도법을 청언하여 미지림교회 3천회이상 전도집회를 통해 평신도지도자 10만 명을 능력전도자로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진다. 귀하게 쓰심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드린다. 주님의 선한 일꾼인 많은 목회자와 전도 사명자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이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받고 이시대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고현복된교회에서도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때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우울증 증세 등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렇지만 세미나를 마치고 전도하면서 깨끗이 치료 받았고 이웃교회 사모들도 함께 도전받고 한 분 두 분 같이 전도를 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거제도에 사모전도단이 조직되어 매 주마다 교회별로 돌아가며 가족세트전도 훈련하면서 전도현장에 나가는데 저같은 자선같이 생겨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제도 고현복된교회 사모 김정옥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국제화 인가 대안학교 글로벌선진학교

2018년도 가을학기 편입생 원서접수 및 입학설명회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화 인가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2018년도 가을학기 편입생 원서접수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2018학년도 가을학기 편입생 원서접수는 각 캠퍼스 별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수시모집으로 진행된다.

음성과 문경 캠퍼스 모두 3월 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돼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관찰 전형 캠프 순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 지원 대상은 중학교 1학년 부터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다.

원서접수 기간에 진행되는 입학설명회는 음성과 문경캠퍼스가 동일하게 4월 21일(토)과 6월 16일(토)에 개최될 예정이다. 편입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높은 관심이 있는 예비 학부모님들도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글로벌선진학교가 자랑하는 특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활동 졸업생들의 국내대학을 비롯한 아시아,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대학의 진학실적 등 학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선진학교의 음성과 문경캠퍼스 미국 펜실



베이니아 캠퍼스, 세종캠퍼스(유·초·중·부) 교육의 특성은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세밀하게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등) 학습을 강화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등 글로벌소통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ARML(American Regions Mathematics League)에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들이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본선에 진출했으며 세계적인 수학영재들과 겨루어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음성캠퍼스(043-871-7000), 문경캠퍼스(054-559-7000)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www.gemgem.org)로 접속하면 모집요강을 확인할 수 있다.

나사렛대-국방정보통신협, 협약 체결

교육사업 공동 연구·발굴 등 상호지원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는 지난 4월 3일(화) 오전 11시 나사렛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사)국방정보통신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 국방정보통신협의회 조인희 부회장, R&D센터 이철호 부장, 산학협력단 김형조 단장, 대외협력실 이현구 실장, 나사렛발전연구소 이준호 소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업무교류와 국방분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에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사업 공동발굴, 추진, △공동연구 활동 등에 상호 지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승안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국방정보통신협의회와 대학이 상호 협력해 발전하고 양 기관의 위상을 높여가자"고 말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세계선교연합회 선교팀 미얀마와 인도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선교

3개 성전 교회당 헌당예배와 신학교 졸업예배 참석, 축복성회 인도

세계선교연합회 회원과 찬양단(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 청년 성도들로 구성된 50명의 해외 선교팀은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 동안 미얀마 양곤과 인도 벵갈로르의 은혜와진리교회 선교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선교팀은 이 기간 중 신축한 교회당 헌당예배와 신학교 졸업예배를 드리고 축복성회를 인도하였으며, 의류, 의약품, 학습용품 등의 물품을 교회와 고아원 등에 전달하고 선교사를 비롯한 사역자와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다.

먼저 미얀마 양곤(선교사 아웅밍탕 목사)을 방문한 선교팀은 은혜와진리교회의 지원으로 신축한 밍갈리온 성전에서 헌당예배를 드렸다.

밍갈리온 성전은 신학교와 고아원이 함께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이 밝고 예쁜 모습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에서 선교팀은 가슴 뭉클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헌당예배와 함께 은혜와진리교회의 도움으로 정비와 포장을 마친 교회 앞 도로의 개통식이 열려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였다.

선교팀은 이어서 호우가 성전과 터우엔 성전에서 현지 교인들을 위한 축복성회를 인도하였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예배가 드려졌다.

미얀마 은혜와진리교회에 이어서 선교팀은 인도 벵갈로르 은혜와진리교회(선교사 앤 데이빗 목사)를 방문하여 고탈라팔리 성전과 반데킨다팔리 성전의 교회당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와 함께 인도 은혜와진리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현지의 목회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함께 졸업생들을 축복하였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원생들이 졸업예배에서 한국어와 한자어로 '좋은인 하나님'을 찬송하여 참석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인도 은혜와진리 선교센터를 방문한 선교팀은 앤 데이빗 선교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과 화답하고, 인도의 복음화와 인도 은혜와진리교회의 복음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를 드렸다. 앤 데이빗 목사는 갈수록 기독교

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국내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5월에 있을 선거에서 선한 지도자가 선출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도가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도회에 이어서 선교팀은 선교사의 안내로 선교센터와 신학교 신축 부지를 둘러보며 비전을 주시고 섬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조용목 목사는 헌당예배와 축복성회에서 각각 '회개와 천국(마 4:17)',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요 14:6)'라는 제목의 메시지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선교사가 통역하는 조용목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하였다. 예배시간마다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와 청년들이 특송과 워십찬양으로 성도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올해로 세계선교연합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팀은 각각 불교와 힌두교가 국교나 다름없는 미얀마와 인도에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감내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은혜와진리교회의 지속적인 지원 속

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선교지가 확장되어가는 선교의 열매를 확인하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나눔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부흥사회 회장

부흥사회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장석우원장



김양인 목사
총회장



김인안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발명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신교회



김건수 목사
재주한미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정주중앙신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진동웅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이종남 목사 (진주중앙신복음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진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조남영 목사 (대림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인안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부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신교회)	임영광 목사 (연안서복교회)	오승욱 목사 (연안서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총무	상임총무	상임총무	사무국장	사무총무	사무총무	사무총무	사무총무	사무총무
황윤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신복음교회)	정성현 목사 (영광교회)	백영자 목사 (동대문신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신복음교회)	최정식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진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윤혜영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배율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신복음교회)	조성남 목사 (대림제일교회)	김병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박종열 목사 (오성시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신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임형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조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양은혜 목사 (정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최남성 목사 (동대문신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중앙신복음교회)	권택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연옥 목사 (영광교회)	이화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임영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경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신복음교회)	정환무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명주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미 목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최승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로마가톨릭과 한국NCCK 직제 통합이 부당한 이유(2)

9) 가톨릭교회는 또 다른 구원자 마리아를 주장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는데 중보자로서(Intercession)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준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968 #969, #494)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중보자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마 1:21, 눅 2:11, 행 13:23, 딤후 3:6, 벰전 1:18-19).

10) 가톨릭교회는 말한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 받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가르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491, #494, #508, #722, 전례 헌장 103항).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롬 3:10-12, 롬 3:23, 갈 3:22), 마리아를 빼고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마리아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으며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눅 1:46-47, 마 12:48-50, 눅 11:27-28, 요 2:1-5).

11)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510, #499, 교회헌장 52항).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과 그 외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아 키웠다(마 13:55, 막 6:3, 갈 1:19, 마 28:1).

12)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는 거룩함의 근원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2030)고 주장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이러한 망측한 교리를 믿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전혀 교리적 교제가 불가능하다. 성경은 이러한 마리아의 거룩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마리아도 인간임을 말하고 있다(눅 1:48, 계 15:4, 레 11:44, 시 99:3-9, 사 6:3, 사 43:15, 48:11, 벰전 1:15-16).

13) 가톨릭교회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 마리아를 믿는다. 복된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을 가진 자로 믿는다(교회헌장 62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969).

성경은 유일한 변호자이며 중보자 한분 예수님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롬 8:27-34, 열 2:18, 3:11-12, 고전 2:2, 요일 2:1, 하 13:6, 딤후 2:5, 히 7:25, 9:15, 9:24).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 중보자가 2명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14) 가톨릭교회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기도의 응답자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악한 교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우리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또한 자극히 거룩한 분, 자비의 어머니께 호소한다.. 마리아는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계셔서 주실 것이며 우리가 제 세상으로 간

너가는 시간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맞이하여 천국에 계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비는 바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971, 제 4편 #2677)” 라고 고백한다.

이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교리를 주장한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구하라고 명하고 있다(렘 33:3, 시 50:15, 55:2, 86:6-7, 91:15, 사 33:2, 마 11:28, 빌 4:6).

15)가톨릭교회는 나이가 더욱 막중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마리아를 “천지의 여왕”이라고 지칭하여 만왕의 왕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명령되게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동정녀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천지의 여왕(Queen over all Things)으로 추대 받았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966)”고 고백하고 있다.

“만물을 다스리는 여왕”의 신앙은 전혀 이방 민족이 여정 신을 섬기는 이교도 사상(렘 44:17)을 끌고 들어온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시 18:46, 21:13, 29:11, 46:10, 47:9, 57:5, 사 33:5, 빌 2:9-10, 벰전 4:11, 계 5:12).

16) 가톨릭교회는 연옥설(Purgatory)로 구원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 2의 기회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아직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1030). 이를 연옥(#1031)이라 부르는데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교리를 피렌체(Florence) 공의회와 트렌트(Trent)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1031). 어떤 이는 여정(Pilgrims)에 남아있고 어떤 이는 단련을 받고 있고 어떤 이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교회 헌장 49항, 트렌트 공의회 제 1편 #964)”고 주장한다.

성경의 주장과 너무 다른 이 교리는 사실상 성도들에게서 속죄권을 통해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악한 수법으로 만들어진 교리이다. 성경은 구원은 전혀 가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다(행 20:28, 롬 3:24, 5:9, 5:18, 6:23, 롬 8:1, 고전 6:11, 6:20, 엡 2:8, 히9:26).

17) 가톨릭교회는 죽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 얻도록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한다(교회헌장 20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958).

성경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며, 부활 후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오직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뿐임을 밝히 말하고 있다(히 7:25, 엡 1:20-22, 마 28:18).

18) 가톨릭교회는 견신례(Confirmation)를 통해 양자의 신분을 더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성사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316, #1317)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양자는 오직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며 인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롬 8:1, 15-16, 23-24, 9:4-5, 고전 12:3, 엡 2:8-9).

19) 가톨릭교회는 내적 성령에 의한 기도를 배격하고 이교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전승(Tradition)을 통해 기도하는 방식을 배울 것”을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4편 #2650).

성경은 기도의 발동이 성령에 의해 내적 충동으로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창 20:17, 민 11:2, 왕하 6:18, 시 3:4, 30:2, 62:8, 120:1, 마 20:17, 빌 4:6-7).

20) 가톨릭교회는 죄에 대한 고해성사(Penance)를 강조한다. 용서는 죄를 없애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712). 죄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더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죄에 대한 고해를 해야 하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값을 고해성사(Penance)라 말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459).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호러라도 남김없이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다(시 88:5, 롬 3:28, 하 10:17-18, 갈 2:16, 2:21).

21)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 화목의 교리를 수평적으로 성도간의 화목을 주장하기 보다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화목을 강조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462).

성경은 구원에 대한 화목의 교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 성도간의 화목을 강조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대 자연과의 화목이 이루어 진다고 말하고 있다(고후 5:18-20, 엡 2:16, 골 2:17-20).

22) 가톨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은 독신생활을 강조한다. 서품 받은 직무자들은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살고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생활을 가진 남성들 가운데서 선발한다. 독신생활은 봉사하도록 거룩한 축복을 받은 삶의 표징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독신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사제직무령 16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579).

성경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히 13:4). 감동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딤후 3:2-12).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자를 청조하셨다(창 2:18). 양심의 화인 맺은 사람들은 결혼을 금한다(딤후 4:1-3)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고전 7장에는 독신으로 지내든지 결혼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사설

폼페이오 ‘北核 폐기 없이 보상 없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미 기류가 달라져 너무 달라 당황스러울 정도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고삐를 더 죄고 있는 반면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비핵화 이후 어떤 선물을 안겨줄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폐기가 매듭되기 전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미 의회와 미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 청문회에서 대북 군사훈련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한다’면 대북 지상전 시나리오도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엔 ‘예스’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교로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판도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의 리바이식 해법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임이 제차 확인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분위기와 얼마나 진행될지라도 한·미 조율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4·27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바로 그 통일부가 북한 핵무기 폐기는 커녕 대북 환상을 부추기는 듯한 황당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 통일부는 페이스북에서 댓글 달기 이벤트 공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남북 정상들에게 전달할 희망 사항, 정책 제안 등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경품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도 남북 정상회담을 너무 이벤트로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례로 제시해 놓은 7가지 문장을 보면 더 아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요’, ‘남북정상이 금강산 정상에 같이 올라요’, ‘대동강 맥주와 한라산 소주로 소맥 한 잔’, ‘정상회담은 도원결의처럼 관문점 꽃나무에서’, ‘식목행사는 북한에서’ 등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다.

헌법개정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그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18조)에 보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에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포함시켰다.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25조에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4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3항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무원 노동자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

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권 등은 이법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의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뀔 정도의 헌법개정안은 ‘헌법개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복음전파에 큰 제약이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게 되면, ‘조폐’가 ‘법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본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기틀 위에서 발전하고 지속되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6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체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체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제67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7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8년 5월 21일(월) | 4. 사무총회 : 5월 21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21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2 |
| 3. 개회예배 : 5월 21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

2018년 4월 5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양 인

5월 20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8년 5월 20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담임목사 청빙 공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2018년 4월 기준 만 40~55세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 졸업
(교육부 인가, 단, 성공적인 목회활동 하시는 분중 예외)
- 경력 :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기타 : 초교파 목사지원 가능

2. 1차 제출서류

- 청빙지원서 각 1부, 사진부착(본인 및 사모)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소정양식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www.ccfgc.or.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목회계획서 : 목회동기, 목회철학, 비전, 바람직한 목회자 및 교회상
(A4용지 5매이내)
-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서 (성장배경 및 가족의 신앙이력)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교단소속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3. 교회소개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홈페이지 www.ccfgc.or.kr 참조하세요.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9일 ~ 5월 30일까지

(청빙서류접수는 메일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
(등기우편은 봉투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재증 기재
5월 30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5. 제출처 :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 e-mail : ccfgc9900@naver.com
- 문의 : 문의사항은 메일로만 가능하며 답변도 메일로만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